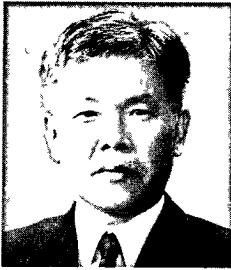


沙蔘의 眞僞

- 더덕과 잔대 -

申 旆 輝



1. 들어가는 글

韓藥材의 이름은 알면서 산야에서 자라는 풀이나 뿌리를 보면 무슨 약인지 모르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었다.

한약 專門人으로서 자부심을 가질려면 좀더 자세히 자생식물의 성장과정을 알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한약초 사진을 찍으며 자료를 모은지 10여년이 되었다.

식물도감에서 사진을 대조해 가며 식물이름을 찾고 다시 본초학 서적들에서 한약명을 찾는 방법으로 하나하나 익히다 보니 실지로 한약으로 쓰이고 있는 식물과 최근에 발간된 본초학 책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들이 군데군데 발견되었다. 同名異植物이라고 할까?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일주일이면 2~3일은 이른 아침시간을 이용하여 대구 근교의 산과 들 그리고 약초시험장 등에서 한약초의 생태도 배우며 사진을 찍으러 가게 되었다.

각 시험장¹⁾에 심어져 있는 약초이름에는 식물이름과 한약이름이 같이 쓰여져 있는데 더덕의 팻말에는 예외없이 羊乳라고 쓰여 있었다. 더덕이 沙蔘인데 팻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직원들에게 문의해보면 답은 어디에나 같았다

농업진흥청에서 93년도부터 더덕을 羊乳²⁾로 표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내가 쓰고 있는 더덕 沙蔘이 잘못된 것인지 의문이 생기면서 문헌을 찾아보고 현재의 흐름을 파악하고 예견된 혼란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선배 제현들의 고견을 듣고 싶다

2. 더덕이 沙蔘으로 기재되어 있는 문헌들

한약이라면 本草綱目を 말하겠으나 중국의 문헌이고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쓰여왔나를 찾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 鄉藥集成方을 찾아보았다

鄉藥이란 말은 제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가리킨 것이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약은 唐藥

1) 의성, 함안, 진안, 북후 약초시험장

2) 농업진흥청, 농업과학기술연구 및 설계평가회에서 학계와 각 특용작물과장들의 합의에 의하여 중국, 일본에서와 같이 더덕을 양유로 표시하기로 하다 (안동북후시험장장 정상환)

이라고 부르는데 대한 제나라 약의 총칭이다³⁾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을 백성들이 쉽게 알고 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찬한 것이다

鄉藥集成方⁴⁾에 沙蔘이라고 쓴 것 밑에 鄉名 加德(더덕)이라고 쓰여있다. 鄉名에 한문으로 쓴 加德이 무엇일까?

향약집성방보다 2년 먼저 발간된 鄉藥採取月令⁵⁾에 의하면 沙蔘이라고 쓴 밑에 鄉藥名 加德이라고 붓글씨로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말을 한문으로 표기한 것이 아닐까? ‘더할가’의 ‘더’字와 ‘큰덕’字의 ‘덕’字를 읽는 방법일 것이다. 같은 장에 白芷의 향약명을 仇里竹이라 표시되어 있다. ‘대죽’의 ‘대’자로 읽으면 구릿대가 된다. 식물도감⁶⁾에 白芷는 구릿대로 기록되어 있다. 許浚의 東醫寶鑑⁷⁾ 黃道淵의 方藥合編⁸⁾ 申佶求의 申氏本草學⁹⁾ 등에 모두 더덕이 沙蔘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3. 잔대를 沙蔘이나 羊乳로 표시한 최근의 책들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행한 한약규격집¹⁰⁾에 잔대가 沙蔘이며 羊乳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한의약의 본산이라고 하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 주임교수인 安德均 著 한국本草圖鑑¹¹⁾에 잔대를 沙蔘, 더덕은 羊乳라 했으며 더덕을 사삼으로 쓰는 것은 잘못이라고 쓰여 있다. 이외 韓藥學¹²⁾ 도해 鄉藥(생약)大辭典¹³⁾ 등 최근에 발간된 한약에 관한 전문서적들은 잔대가 沙蔘이고 더덕은 羊乳라고 기록하고 있다.

4. 북한이 한약책들은 어떻게 쓰여 있나?

실용동의학¹⁴⁾에는 더덕(사삼), 게루기(제니)는 잔대 및 기타 잔대속 식물의 뿌리라고 쓰여있다.

3) 韓國醫學史, 金斗鍾, 1979, 206쪽

4) 鄉藥集成方, 世宗 15년, 1433, 卷78, 草部 上品之下

5) 鄉藥採取月令, 世宗 13년, 1431

6) 한국식물도감, 이영노, 1998, 566쪽

7) 東醫寶鑑 湯液篇, 卷 2, 光海君 2年

8) 方藥合編 蔓草部, 高宗 21年

9) 申氏本草學, 1973, 121쪽

10) 한약(생약)규격집, 보건사회부, 대한한약협회 공동발행, 1985년, 185쪽

11) 한국본초圖鑑, 안덕균, 1998, 羊乳根=더덕 63쪽 沙蔘=잔대, 666쪽

12) 陸昌洙의 4명 공저, 1992, 광명사, 羊乳根=더덕 63쪽

13) 도해 鄉藥(생약)大辭典, 鄭普燮의 1명, 더덕=洋乳, 1087쪽, 잔대=沙蔘, 1088쪽

14) 실용 동의학, 일월서각, 차진현 더덕=사삼, 133쪽 게루기=제니, 4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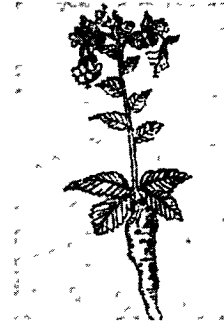
□ 사삼의 진위

한국의 보약¹⁵⁾에는 사삼(더덕)이다 사삼으로 쓰이는 약중에는 잔대, 층층잔대, 왕잔대, 더덕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잔대속 식물의 뿌리를 사삼으로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더덕을 사삼으로 쓴다고 되어있다.

5. 중국의 책들은 어떻게 쓰여있나?

本草綱目¹⁶⁾의 沙蔘란 밑에 작은 글씨로 又名 羊乳 一名 地黃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역시 작은 글씨로 沙蔘의 형태를 설명한 것을 해석해본다. (원문생략)

沙蔘은 곳곳 산에 있으니 2월에 싹이 나온다 처음에는 작은 아욱과 비슷한 잎이 나오지만 둥글고 평평하며 광택이 없다. 8~9월에 줄기가 1~2척으로 자란다 줄기위에 달린 잎은 구기잎처럼 뽕족하고 길며 톱니가 나있다 가을에 잎사이에 작은 보라색 꽃이 피는데 길이가 2~3촌이고 방울모양이며 하얀심이 5개 나온다 열매는 冬靑만하고 속은 작은 씨앗이 있다. 서리가 내리고 나면 싹이 마른다 모래땅에서 자란 뿌리는 1척이 넘고 호랑이 입만하여 황토흙에서 나면 짧고 굵직하다 뿌리와 줄기에 모두 하얀즙이 있다. 8~9월에 채취하면 희며 충실하다. 봄에 채취하면 약간 노랗고 빈듯하다.



본초강목의 사삼그림

위 글은 층층잔대 톱잔대의 설명이며 그림도 잔대의 그림이다 즉 잔대=沙蔘이다

中國本草圖錄 卷5¹⁷⁾ 沙蔘란에 보면 잔대의 설명이며 사진이다 中約大辭典(上海版 上下卷)에는 沙蔘이나 羊乳가 쓰여있지 않으며 本草綱目에도 양유라는 약명은 발견할 수 없었다.

중국에서는 잔대를 沙蔘으로 표현하고 있다

6. 식물학적 분류

韓國植物圖鑑¹⁸⁾에 의하면 더덕은 초롱꽃科로 더덕屬에 속한 식물이다 더덕屬에는 더덕, 푸른더덕, 만삼, 소경불알 등 4종이 있다 더덕과 푸른더덕은 꽃색깔 차이이고 만삼은 蔓蔘으로 쓰이고 있으며 소경불알은 烏蘇里黨蔘¹⁹⁾으로 되어 있다



더덕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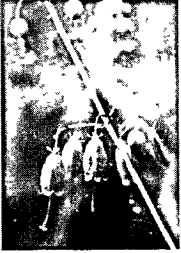
15) 한국의 보약, 최태섭 1990, 300쪽

16) 本草綱目, 李時珍 卷12

17) 중국본초도감, 卷5, 1989, 171쪽

18) 한국식물도감, 이영노, 1988 더덕 769쪽 잔대 760~765쪽

19) 한국본초도감, 안덕균, 713쪽



충충잔대꽃

잔대는 초롱꽃科로 잔대와 모싯대를 잔대屬에 포함되어 있다 잔대의 종류를 적어보면 둥근잔대, 톱잔대, 흰톱잔대, 넓은잎잔대, 도라지모싯대, 흰도라지모싯대, 두메잔대, 가는잎잔대, 진퍼리잔대, 만주잔대, 꽃잔대, 충충잔대, 가는충충잔대, 모싯대, 흰모싯대, 당잔대, 섬잔대, 털잔대, 잔대, 흰잔대, 고산잔대, 당잔대 등 22종류가 잔대속으로 되어있다

더덕을 羊乳라고 命名한 것은 더덕의 줄기나 잎에 상처를 내면 흰즙이 나오는데 양의 젖과 같다고 하여 羊乳라고 한다 잔대속의 식물도 줄기나 잎에 상처를 내면 흰즙이 나오는데 더덕보다는 적게 나온다 식물도감의 잔대속은 鄉藥集成方에나 鄉藥採取月令에 나오는 季奴只(게로기)는 齊菴로 본다. 이는 실용동의학에서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7. 현재 쓰이고 있는 것은 沙蔘(더덕)이며 유통도 沙蔘(더덕)이다.

(1) 340여년간 한약의 脈을 이어오고 있으며 한약의 집산지인 약령시장내 60여개소의 한약방을 중심으로 沙蔘(더덕)에 대하여 방문 조사해 보았다 한 업소를 제외한 전업소가 沙蔘(더덕)을 쓰고 있었으며 사삼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체를 이상히 여길 정도였다. 속칭 약전골목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최선생²⁰⁾ 말을 인용한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더덕을 沙蔘으로 사용해 오고 있으며 나 자신 당연히 더덕을 沙蔘으로 쓰고 있다 최근에 발간된 한약책들을 보니 羊乳로 표시된 것을 보았으나 잘못된 것이 아닐까? 반문한다”

단 한업소만 잔대를 사삼으로 사용하는 박선생²¹⁾의 말을 인용한다

“90년도 중국의 安國에 갔을 때 잔대를 사삼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귀국해서 중국쪽 문헌을 보니 잔대로 되어있어 그때부터 바꾸어 사용해 오고있다 효과는 잔대나 더덕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같고 건재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어 작업을 시킨다는 것이다”

(2) 전국에서 유일한 공영 한약재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것은 沙蔘이 더덕이다. 이곳에서 경락되는 가격이 전국의 시세기준이 되며 물동량의 통계가 정확하다 96년도 沙蔘(더덕)이 경락된 것은 16톤이고 97년도 18톤으로 80여종이 상장되는 한약재중 4번째²²⁾로 많이 거래되는 품목이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주로 전북 무주쪽에서 상장되고 있으며 중도매인에 의하여 전국 한약방, 한의원, 약업사, 약국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 물량이 전국에서 소비되는 사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잔대라는 사삼은 한번도 상장된 것

20) 대구한약방, 최중대

21) 본도당한약방, 박병훈

22) 대한한약 제2호, 98 수입한약재가 국산한약재에 미치는 영향, 신전휘, 403쪽

■ 사삼의 진위

이 없으니 시세도 없고 통계도 없다.

잔대는 의성, 안동지방에서는 작두 또는 가만삼이라고 부르는데 생것은 식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주로 서울 상인들이 구입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약재로 건조된 것을 보지 못했으며 구입해 본적도 없다는 수집상 이현대씨의 말이다.

8. 문헌에 나타난 더덕과 잔대의 표시

지금까지 설명하고 참고한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책 명	沙參 (더덕)	沙參 (잔대혹은 양유)	비 고	책 명	沙參 (더덕)	沙參 (잔대혹은 양유)	비 고
향약집성방	○			도해향약대사전		○	
향약채취월령	○			실용동의학	○		
동의보감	○			한국의 보약	○		
방약합편	○			본초강목		○	
신씨본초학	○			중국본초도감		○	
한약규격집		○		현재유통	○		
한약학		○					

9. 더덕과 잔대의 약성비교

비교적 설명이 간결하고 더덕(사삼), 계루기(제니), 모싯대 및 기타 잔대속 식물의 뿌리라고 설명한 실용동의약학에 쓰여있는 약성을 적어본다.

	더 덕(사삼)	계루기(제니), 모싯대, 잔대
맛	달고 쓰다.	달다
성질	약간 차다	차다
귀경	폐 위경에 작용	폐경에 작용
약성	음을 보하고 열을 내리게 하고 폐를 녹여주어 기침을 멈추고 위를 보하고 진액이 생긴다	가래를 내려보내고 기침을 멈추며 갈증을 멈추고 독을 푼다
맛음증	폐음이 부족하여 열이 나고 기침하는데 오랜기침 급성 및 만성 기관지염 열병으로 진액이 상해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데 쓴다	가래가 있고 기침하는데 기관지염, 폐결핵으로 기침하는데, 열이 나고 갈증나는데, 약물중독 뱀이나 벌레 물린데, 식중독, 헌데 등에 쓴다

10. 문제점

(1) 문헌에 나타난 역사를 보면 1431년에서 1980년대 까지 발간된 책들은 모두가 더덕=沙蔘으로 되어있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80년대 후반부터 발행되는 책들은 잔대

=沙蔘, 더덕=羊乳라고 쓰여 있다.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한약재도매시장에서만 연간 20여톤이나 거래되고 있는 더덕인 사삼을 제약 허가를 신청했을때 어떻게 될까? 한약규격집에 의한 보건당국의 잣대로 보면 허가해줄 리 없다 현실적으로 재배에서 유통 소비까지 모두가 沙蔘(더덕)으로 쓰고있는데 더덕이 羊乳이고 잔대가 沙蔘이라고 교육받고 개업한 한의원 약국에서는 어디서 잔대인 沙蔘을 구입해 사용하는지?

(2) 沙蔘(더덕)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단속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약전골목에서 개업하고 있는 한약방 모두가 단속의 대상이 될 것이다 관습과 행정력의 사이에서 마찰은 예상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옛날에 많이 쓰이던 江芍藥(山芍藥)이 재배芍藥으로 土川芎이 日川芎에 의하여, 何首烏가 재배何首烏에 의하여 약이 변한다면 和劑가 아무리 좋아도 약이 변했으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4) 安德均著 한국본초도감에는 羊乳=더덕, 사삼(沙蔘)=잔대라고 하면 鄉藥集成方, 東醫寶鑑, 方藥合篇, 東醫壽世保元 등 어디에 보아도 羊乳라는 藥名은 찾을 수 없고 和劑도 없다. 우리 조상들이 食藥同源의 사상에 의한 삶의 지혜를 여기저기에서 발견하게 된다 장기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오래 산다는 上品藥이 食品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

단삼이 黃芪로, 삼이 人蔘으로 오미자를 五味子, 승검초가 當歸로, 식용기호품으로 그리고 藥用으로 사용해 왔는데 더덕이 약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을리 없다. 그러나 더덕=羊乳라고 했다면 보약으로 쓰이는 和劑에 羊乳라는 약명이 있어야 하는데 발견하지 못했다.

11. 結論

오랫동안 쓰여오던 漢醫藥이라는 漢자가 사대사상의 잔재라며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韓자로 바꾼지 10여년이 지났다 500여년이나 沙蔘을 더덕으로 써오고 또 문헌에도 뚜렷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중국과 일본에서 沙蔘을 잔대로 쓴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발상의 자체가 학문의 사대주의가 아닌지 묻고싶다

더덕=沙蔘 잔대 모싯대=齊芎라고 쓰여있는 鄉藥集成方대로 쓰는 것이 옳다 교육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약령시 보존위원회 이사장 대구 중구 장관동 55 백초당한약방 ☎ 252-5505)